

서창동 하천부지, 문화쉼터 ‘나눔누리숲’으로 탈바꿈

서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잔디광장·산책로·야외무대 마련
‘역새축제’ 연계 명소 활용 검토

불법 적치물과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됐던 광주 서구 서창동 하천부지가 푸른 정원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광주시 서구는 광주 서구 서창동 하천 부지 일원에 ‘나눔누리숲’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는 9억 66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광장과 산책로, 조형물, 야외무대 등으로 구성된 3705㎡ 규모의 주민 휴식·문화 공간을 마련했다.

이 부지는 하천부지로서 국유지이며, 오랫동안 별다른 활용 방안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그 사이 부지에는 향아리·돌담·양병장 등 불법 적치 시설물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모래밭에 없는 공터에 건설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서구는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중 일부를 활용해 환경 정비에 나섰다.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업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불법 적치 시설물을 단속하고 철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조경공사에 돌입해 올해 4월말 준공했다.



오랜 기간 방치돼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이 나뒹굴던 광주 서구 서창동 하천부지(왼쪽)와 해당 부지에 새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나눔누리숲’.
(광주시 서구 제공)

‘나눔누리숲’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서창나루 마지막 뱃사공이자 생전 나눔을 실천한 인물로 알려진 박호련의 정신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박호련은 쌀을 풀어 마을 사람을 구제한 인물로, 그의 공덕을 기려 주민들이 세웠던 송덕비가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 서창치안센터 앞에서 나눔누리숲 내로 이전·정비됐다. 비석은 진입광장에서 나룻배 광장으로 향하는 방향에 나란히 배치됐다.

나눔누리숲은 박호련의 삶을 테마로 한 ‘역사마루’와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마루’로 나뉜다.

역사마루에는 나룻배 광장, 나눔정원, 착한계단

이 마련됐고, 노을마루는 S자형 산책로와 피크닉존, 야외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노후화된 정자인 ‘유양정’은 이번 조성 사업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해 원형을 살렸고, 새로 조성된 돌담과 함께 간이 쉼터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자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탁 트인 강변과 노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 숲 전체를 테마가 있는 공원처럼 꾸몄다는 것이 서구 설명이다.

조경 공사 과정에서는 중앙근린공원에서 발생한 잉여 토사를 활용해 흙을 메워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서구는 나눔누리숲을 향후 문화·생태공간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연계 계획도 구상 중이다. 매년 가을 영산강변에서 열리는 지역 대표 행사인 ‘서창역새축제’와 연계하거나, 동별 주민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데크길, 노을전망대와 연계해 도심 속 생태 힐링 명소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서구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로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들이 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숲으로 되살렸다”며 “박호련의 나눔 정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이자, 누구나 찾고 싶은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희망의 거리’ 관광명소로 발돋움

댄스챌린지·꿈꾸는 요리사·홍보대사 활동 등 문화사업 운영

광주시 북구가 ‘희망의 거리’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올해 광주 서구 삼각·일곡동 ‘HOPE STREET’(희망의 거리)에서 ▲Shout the HOPE ▲한 끼의 행복 꿈꾸는 요리사 ▲줍지기 희망의 거리에서 꿈꾸다 등 3개 문화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희망의 거리는 북구가 삼각·일곡동 일대 17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조성한 공간으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오는 24일부터는 댄스 챌린지 ‘Shout the HOPE’ 행사를 진행한다. 전세계 K-팝 팬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은 랜덤편레이댄스와 지역 중·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의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9월까지 4회에 진행되며, 8월 30일에는 전국의 아이돌 지망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사 연합 오디션도 열린다.

‘한 끼의 행복, 꿈꾸는 요리사’는 희망의거리 인근에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리는 행사다. 외국인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요리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행사로, 오는 11월까지 총 8회 운영된다.

북구는 또 희망의 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청소년 홍보대사로서 ‘줍지기’를 선발할 계획이다.

줍지기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오는 11월까지 희망의 거리 주요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를 SNS 홍보 콘텐츠로 제작 및 편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줍지기는 댄스 및 SNS 홍보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 청소년 10명으로 선발되며, 북구가 제공하는 희망의 거리 탐방과 콘텐츠 제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금까지는 희망의 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다양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여 희망의 거리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산구, ‘달라잇가든’ 건강카페 3호점 지정

자동혈압계·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자료 등 제공

광주시 광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 본부와 광산어동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달라잇가든’(무전대로 210)을 건강카페 3호점으로 지정하고 인증패를 전달했다.

건강카페는 광산구 수원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카페 달라잇가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1층에 자리했으며,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에서 무상 임대 및 시설 등을 지원하고, 광산어동지역자활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를 방문한 고객들은 자동혈압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자료 등이 비치돼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컵걸이(홀더)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9대 수칙 영상을 볼 수 있다.

수원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카페 1호점인 카페홀더 광산구청점과 2호점인 수원뜨락울을 운영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광주시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동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 중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동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채감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구, 하반기 재정지원 사업

88명에 일자리...23일까지 접수

광주시 남구가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내 주민 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남구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 서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또한 4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 사람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일자리는 공공 시설물 관리와 운영 지원 등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 참가자는 총 50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근로 조건은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르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한 상태에서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3000원이며, 교통비와 간식비, 주·월차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남구청 1층 접수 창구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62-607-2676)로 전화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